

# 梅泉 詩의 排律에 대하여

김영봉\*

<차례>

- I. 序言
- II. 梅泉 詩의 總體的 分類
- III. 七言律詩 <示重三>의 特徵
- IV. 七排賦體詩 <萬壽聖節-七排賦五十二韻>의 경우
  1. 賦와 排律과 排賦
  2. 作品의 特性
- V. 五言排律 <宿山寺>
- VI. 結語

## I. 序言

梅泉 黃玟(1855~1910)은 古體詩와 近體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漢詩 作品活動을 했던 분이다. 古體詩의 장르도 多樣하여 咏吟·賦·歌·曲 등의 구별 없이 성공적인 詩 作品을 남겼으며, 近體詩에 있어서는 精確한 作詩法을 고수하면서 五·七言의 絶句나 律詩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近體詩 가운데서는 12行 포함 16行의 七言排律을 짓지 않았다. 梅泉 詩 전체를 섭렵한 뒤 近體詩를 뽑아 놓고 近體詩를 다시 平仄法, 粘法, 脚韻法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를 구별하고 보니 <示重三>과 <萬壽聖節-->만이 七言排律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韻字 中心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示重三>은 律詩의 二首가 排律처럼 보이게 될 뿐 실상은 七律 二首가 通韻을 이루고 있는 構成이며, 二首一篇으로 律詩가 된 連作詩일 뿐이었다. <萬壽聖節-->은 副題의 설명과 같이 七排賦五十二韻으로 된 長詩이다. 賦體의 古體詩로 쉽게 분리하며 정리할 수 있었다.

本稿에서는 매천 시의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七言排律로 보이는 이 두 七言詩를 중심으로 매천 시의 五言排律을 포함하여 排律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매천 시의 이러한 작품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 작업으로 기존에 분류되었던 매천 시의 外形을 再考察해 보고, 그 가운데 七言律詩 <示重三>과 七言排律로 보이는 <萬壽聖節-->과 또 五言排律 <宿山寺>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賦와 排律과 排賦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 II. 梅泉 詩의 總體的 分類

成均館 典儀 權明洙가 1979년 『梅泉集』을 간행하면서 쓴 解題에서 매천 시는 총 839首라고 하였다.<sup>1)</sup> 篇과 首를 구별하여 말한다면 총 434篇 839首라고 해야 한다. 그 후 1984

\* 완산고등학교

년 全州大 湖南學研究所에서 정리 간행된 전 4권의 『梅泉全集』에는 詩 1015首를 수록하고 있다. 매천 시는 同一 題目下에 連作詩가 많다. 1908년에 쓴 <署濼次眉公韻>의 경우 오언절구로 53수나 된다. 그러므로 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수는 많아진다.

매천의 漢詩는 장르에 있어서 奇泰完의 『黃梅泉詩 研究』(보고서, 1999)에 있는 「매천시 編年」<sup>2)</sup>에 의하면, 連作한 詩의 숫자를 따지지 않고 詩 題目과 外形으로만 보았을 때 986편이었다. 다만 1편 2종의 詩體는 모두 인정하였다. 『梅泉全集』에는 총 1015편이 수록되어 있지만 중복되는 시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매천시 編年」은 誤謬가 조금씩 있지만 많은 분량의 매천 시의 外形的인 側面을 살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조심스럽게 이 資料를 補完하면서 活用하였다. 따라서 本稿의 통계도 재고의 여지는 있다.

分析한 결과를 보면 오절 26편, 칠절 171편, 오율 133편, 칠율 523편을 합하면 853편이고 五言排律까지 합하면 855편으로 近體詩가 主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매천 시 986편 가운데 근체시는 855편으로 매천 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986편 가운데 絶句를 제외한 律詩는 656편으로 66%이며, 근체시로만 볼 때 총 855편 가운데 律詩는 77%를 차지하고 있다.<sup>3)</sup>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의 漢詩는 『東文選』에서도 傍證되듯이 七言絶句이 인기가 있었다. 그 이유는 五言絶句는 縮約이 진해 外面했고, 五言律詩이나 七言律詩는 아주 드문 편이었다.<sup>4)</sup> 매천은 『文墨萃編』에서 “시가 여러 번 변해서 율시가 되었는데, 율시는 시 가운데 가장 精密한 것이며, 聯·句를 對偶로 하니 율시는 더욱 정밀하고 잘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난 詩篇과 빼어난 名句가 聯·句로서 전한다.”라고 주장 한 바 있다. 그렇지만 漢學의 大家였던 매천이 쓴 總 詩篇을 보면 위의 통계처럼 율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나마 그가 쓴 시의 절반 이상이 七言律詩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매천이 율시를 많이 쓰게 된 理由는 학문적인 자신감과 성격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의 성격은 빈틈이 없었고, 潔白한 율공은 性格에다 꼼꼼하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規則이 엄격한 近體詩를 즐겨 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親弟 黃瑗의 記錄을 보면, 매천의 생활은 캄캄한 밤에도 물건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정리 정돈을 잘하였으며,<sup>5)</sup> 혼자 있을 때도 종일 單坐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마을의 일도 公明正大하게 처리하여 鄉黨은 물론이고 婢僕들까지도 그의 말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容貌 또한 嚴正剛直한 성격의 소유자<sup>6)</sup>였기에 근체시를 즐겨 썼던 것이다.

### Ⅲ. 七言律詩 <示重三>의 特徵

매천이 가장 즐겨 지었던 시체가 칠언율시였기에 이러한 결과에 착안하여 칠언율시와 유사한 칠언배율을 찾으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 1) 權明洙, 「梅泉詩解題」, 『梅泉集(全)』, 청구문화사, 1979, 1~2쪽.
- 2) 奇泰完, 『黃梅泉 詩 研究』, 보고서, 1999, 258~279쪽.
- 3) 拙稿, 『黃玑 詩 研究』, 全北大 教育大學院 漢文教育科 碩士學位論文, 2003, 39~40쪽.
- 4) 文守弘, 「梅泉 黃玑의 愛國詩攷」, 東國大 教育大學院 論文, 1986, 57쪽.
- 5) 黃瑗, 「先兄梅泉公事行零錄」, “所居室一塵不動所置物皆井井有常處, 雖夜可以摸取也.”(『梅泉集』, 23쪽)
- 6) 寧海 朴文鎬, 「梅泉黃公墓表」, “爲人短小精悍 疎眉廣額” “性梢勁”(『梅泉集』, 7쪽)  
黃瑗, 「先兄梅泉公事行零錄」, “形貌精悍如秋鷹竦立”(『梅泉集』, 16쪽)

매천 시 가운데 칠언율시 2수가 합해져 16행으로 된 시로는 1902년에 쓰여진 <宿鳳亭里趙仁汝庄>라는 시가 있었다. 이 시는 평성(齊)자 一韻到底韻으로 되어 있고, 점법도 이상이 없지만 7행과 8행이 對偶가 되어 있지 않고 二句法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排律이 아니고 七言律詩 2수였다. 매천 시에서 16행으로 된 또 다른 칠언시 <示重三>의 경우도 흡사 칠언 배율과 같아 보였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이 시를 분석하여 보기로 하였다.

작품을 分析하는 要領으로는 작품의 生成背景과 主題를 파악해보고, 脚韻과 平仄法과 黏法을 통괄하는 簾을 보고, 기타 언어에 따른 技法이나 構成 그리고 瑕疵 등의 순서로 살펴볼려 한다. 먼저 全文을 옮겨보고, 韻자를 달고 해석해 본다.

- 01 淅淅流澌剪剪風, 얼음 녹아 흐르는 소리 바람이 차고,  
(錫) (支) (銑)(東)
- 02 春寒猶在潤西東, 봄추위 아직도 산골사이에 있다.  
(寒) (隊) (齊)(東)
- 03 山深掃雪花朝後, 아침에는 깊은 산 속의 눈꽃을 쓸고,  
(侵) (屑) (蕭)
- 04 人靜燒香夜室中, 인적이 고요한 밤에는 향불을 피운다.  
(梗) (陽) (質)(東)
- 05 曠野搖星鷄膈膊, 광야의 별은 먼데 닭은 날개를 치고,  
(馬) (青) (職)
- 06 荒林嘯雨燐青紅, 거친 숲에 비 돋는 소리 인물은 청홍 빛이다.  
(侵) (慶) (青)(東)
- 07 夢殘不省江南路, 꿈은 어렵듯해 강남 길을 살피지 못하고,  
(寒) (梗) (覃)
- 08 恨煞松濤起半空, 한스럽게 죽은 소나무 하늘에 솟아있다.  
(黠) (豪) (翰)(東)
- 09 滿屋山空夜水春, 빈 산에 밤 물방아소리 집안에 가득 차고,  
(陌) (東) (紙)(冬)
- 10 濕雲森樹晚重重, 숲 속엔 습한 구름 늦도록 처져 있구나.  
(文) (震) (冬)(冬)
- 11 春寒二月連三月, 봄추위 2월에서 3월로 이어지고,  
(寒) (月) (覃)
- 12 雨意千峰更萬峰, 비 올 듯한 천만 봉우리이다.  
(震) (冬) (願)(冬)
- 13 芳草隨人終是恨, 향기로운 풀은 사람 따라 한스럽고,  
(皓) (眞) (紙)
- 14 高花如我不能濃, 높은 산 꽃은 나처럼 활짝 피지 못하더라.  
(麻) (咍) (蒸)(冬)
- 15 年來尙擁書千卷, 해가 바뀌어도 아직 천 권 책을 안고 있으니,  
(灰) (腫) (先)

16 任汝村丁喚懶農. 너를 게으른 농부라고 부르리라.

(語) (靑) (泰)(冬)

위 詩는 매천이 1891년 37세 辛卯年 초봄에 쓴 <示重三>이라는 詩의 全文이다. 이 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인과 시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시대로부터 그 사람을 알며, 그 사람으로부터 그 뜻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천은 1888년 生員試에 壯元하여 成均生員이 되었다. 하지만 爲政者들의 부패에 환멸만을 느끼고 時局을 간파하면서 다음해 成均館 生活를 청산하고 落鄉하게 되었다. 還鄉하면서 우울한 마음을 달래보고자 경상도 지역을 여행하면서 天池日錄을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光陽에서 求禮 간전의 萬壽洞으로 移徙하여 1890년 苟安室을 지었고, 그 다음 해인 1891년에 이 시를 썼던 것이다.

이 시기의 매천의 詩作 활동을 보면, 그가 大科인 文科 試驗을 포기하고 求官에 失敗했지만 安貧樂道의 生活를 하면서 農村에 파묻혀 生活하는 餘裕를 보인 시기였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지만 生員으로 自足하면서, 鄉班으로서 그리고 훈장으로서 삶의 전성기를 맞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1890년까지는 詩作 活動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었다. 1891년 봄에 이 시를 쓰고 난 후 詩作 活動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마도 다음해 1892년 6월에 父親喪을 당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그나마 1893년에 母親喪이후인 1893~4년에는 詩 創作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兩親喪을 마치면서 매천의 나이 41세인 1895년부터 많은 詩를 썼던 것이다.

<示重三>은 매천이 산촌에 蟄居하면서 한겨울을 보내고, 다음해 초봄을 맞이하고 있는 山村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비록 그가 초야에 묻혀 生活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고독하지 않으면서 君子다운 기상을 갖고 여전히 책 속에 묻혀 學問에 몰두하고 있는, 매천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결코 한가하면서도 편안하게 閑談을 노래하고 있는 시만은 아니다. 官途의 뜻을 버리고 俗塵을 떠나 있긴 하지만 讀書하면서 浩然之氣를 기르는, 忍苦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詩人의 意志를 살필 수 있는 시이다. 詩品人品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詩는 바로 그 사람을 표현한다. 게으름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20세 年下의 重三이라는 사람에게 吐露하면서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 教訓的인 詩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매천의 시 창작은 단순한 글재주가 아닌, 깊은 학문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시의 題材는 적막한 山村이지만, 主題는 讀書에 대한 實踐躬行이라고 할 수 있다.

重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梅泉集』의 <題拙稿散鈔後贈重三>라는 곳에 소개되어 있다. 매천이 나이 40세에 이르러 梅泉詩文鈔를 했을 때 重三이 매천 시를 鈔한 사람이다. 매천 자신은 20세에 이르러 功畧文을 그만두고 비로소 근체시를 익히고, 삼십 세에 비로소 산문을 배웠다고 하면서 중삼이의 성숙한 문장실력을 보고 문장의 힘은 경험이나 나이가 아니라 天分的인 分數와 지혜에 의한다고 밝히고 있다.<sup>7)</sup>

다음으로 詩作法의 基本的 順序에 따라 <示重三>의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韻字表現의 省略을 위하여 1,3,5 不言之 기초에 따라 韻字를 달지 않았다. 또 편의상 詩行의 앞부분에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 ① 「題拙稿散鈔後贈重三」, “余幼時或推夙惠而早驚功令無用之藝, 二十始習近體詩, 三十始學散文”(『梅泉集(上海刊)』, 청구문화사, 1979, 395쪽.

② 李炳基, 『梅泉 黃玿 散文研究』, 보고사, 1995, 47~50쪽.

- 1) 漢詩作法의 原則에 따르면 律詩와 律詩가 합해서 排律이 된다. 初聯內句와 終聯外句만이 二句法으로 構成되어야 하는 技法은 律詩의 初終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構成原理가 된다. <示重三>에서는 初聯,終聯의 內外句만이 二句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排律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中間의 各聯은 對偶法을 이루고 있어 排律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頷聯과 頸聯의 對偶法도 曠野 ↔ 荒林처럼 名詞로 정확하게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07행과 08행에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또한 漢詩作法의 原則에서 보면 律詩와 律詩의 두 개가 합해져서 排律을 만들 때는 09행인 두 번째 律詩의 첫 脚韻은 仄聲을 넣어서 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示重三>에서 보면 09행인 두 번째 律詩의 첫 脚韻이 踏落法을 써서 排律을 完成하는 技法을 써야 하는데, 위시는 두 번째 律詩의 첫 脚韻이 踏落法을 쓰지 않고 있다. 어긋나 있는 것이다. 春자의 脚韻은 平聲 (冬)자 韻이요, 仄자 韻이 아니기 때문이다.
- 3) 平仄法의 원칙적 배열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위시는 仄起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基本的 構成圖와 <示重三>의 構成圖를 펴 보면 다음과 같다.

01 淅淅流澌剪剪風, 얼음 녹아 흐르는 소리 바람이 차고,

(錫) (支) (銑)(東)

× × ○ ○ × × ○

02 春寒猶在潤西東, 봄추위 아직도 산골사이에 있다.

(寒) (隊) (齊)(東)

○ × ○

03 山深掃雪花朝後, 깊은 산 아침 지나 눈꽃을 쓸고,

(侵) (屑) (蕭)

○ × ○

04 人靜燒香夜室中, 인적은 고요한 밤에는 향불을 피운다.

(梗) (陽) (質)(東)

× ○ ×

예문의 01행의 첫 글자 淅과 3자 流, 5자 剪의 밑에 韻字 표시를 안한 것은 1·3·5不言之 運用함이다. 2·4不同은 2자 淅자와 4자 澌자의 韻이 같지 않음을 쉽게 간파하기 위한 방법이다. 2·4不同 2·6對의 원칙적 活用法을 전제하고 보면 平仄韻의 調和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16행까지 모두 정확하게 맞고 있다.

4) 점법을 보기로 한다. 01행과 02행의 2자와 4자의 관계에서 ×(錫)측성 ↔ ○(寒)평성, ○(支)평성 ↔ ×(隊)측성 등의 對稱的 韻字 관계로 보면 된다. 03행의 2자와 04행의 2자 그리고 4자와 4자의 관계도 그렇거니와 16행까지 어긋남이 없이 조화로운 平仄對偶를 이루고 있다.

5) 脚韻法의 原則的 活用に 따라 관계를 살펴보면 起句의 脚韻도 風(東)도 정확하게 달아서 踏落法이 아닌 政格이다. 脚韻은 平聲 (東)자 韻으로 平聲을 사용하여 우울한 분위기는 아니다. 09행부터 시작되는 2首역시 仄起法이다. 脚韻은 (冬)자 韻이다. (冬)자 韻은 古通東으로 1首의 (東)자 韻과 같은 平聲이다. 隔句韻의 原則도 잘 지키고 있다. 13, 14행의 芳草 ↔ 高花의 對偶도 잘 되어 이 시는 정확하게 簾(平仄, 黏法, 脚韻)을 지키고 있다. 칠언절구

측기법의 2수가 합하여 하나의 律詩를 이루며, 결국 이 시는 1), 2)의 내용에 의해 율시와 율시가 합해져 七言律詩 2首로 이루어진 仄起法의 시였다.

#### IV. 七排賦體詩 <萬壽聖節-七排賦五十二韻>의 경우

<萬壽聖節-->이라는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원에서는 먼저 賦와 排律과 排賦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 詩가 創作되는 역사적 배경과 詩作法에 있어서 나타나는 簾(平仄法, 黏法, 脚韻法)을 보고, 아울러 이 시에 나타나는 排律과 排賦의 여러 가지 特徵도 알아본다.

##### 1. 賦와 排律과 排賦

###### 1) 賦

賦는 詩經과 楚辭 이후 漢代(B.C. 206 ~ A.D. 220)에서 새롭게 일어난 文體로 본래 詩經에서 쓰이던 일종의 문학 표현수법이였다. 전국시대 후기에 이르러 荀子는 처음으로 賦를 자기 작품의 편명으로 삼아 이로부터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다. 賦는 詩經 六義(風·雅·頌·賦·比·興)의 하나이며, 詩의 作法이지 문학의 체제는 아니었는데, 荀況·宋玉 이후 文體로 발전하게 되었다. 직접적으로 일을 묘사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문인창작의 주요한 문학양식이었다.

賦에 대한 정의를 보면 周策縱은 “특수한 歌舞 형식을 갖춘 노래가사”라 하였고, 班固(32 ~ 92)는 「兩都賦序」에서 “고시의 유파이다(賦者古詩之流也)”라고 말하였고, 劉熙載(1813 ~ 1881)는 『藝概』에서 “賦는 詩가 아닌 것이 없으나, 詩는 모두가 賦인 것은 아니다(賦無非詩, 詩不皆賦)”고 하였다. 漢代의 劉熙는 『釋名』에서 “그 뜻을 펴는 것을 賦라한다(敷布其義謂之賦)”하였고, 陸機(261 ~ 303)는 「文賦」에서 “시는 감정을 따르는 것이어서 묘하고도 아름다우며, 부는 사물을 묘사하는 것이어서 밝고 분명하다(詩緣情而綺靡, 賦體物而瀏亮)”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賦라는 詩體는 “물건을 펴놓듯이 사물을 묘사하는 문체”라는 뜻으로 종합할 수 있다. 班固는 『漢書藝文志』에서 “노래는 하지 않고 읊는 것(不歌而誦, 謂之賦)”이라 하였는데, 『左傳』에 무수히 나오는 『詩經』의 “某 詩를 賦했다”는 표현은 시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방법으로 읊었음을 뜻하고 있다.<sup>8)</sup>

漢賦의 賦는 긴 행, 중간 休止, 균형 잡힌 對句의 요소들을 갖는다. 賦는 鋪敘를 강구하고 辭藻를 강구하며 대화형식으로 활용하므로, 詩와 散文의 요소들을 결합한 중간에 위치하는 文體이다.<sup>9)</sup> 특히 산문 형식이 혼합되면서 문사가 화려해지는 등 賦의 특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본래 장편의 誦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던 賦는, 西漢 때의 武帝와 宣帝 이후로부터 문인들이 송을 노래하고 덕을 칭송해 공록을 얻는 도구로 삼게 되었다.

長篇 賦의 경우 지나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적으로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宮의 정원이나 사냥터 및 도읍 등의 장엄함을 묘사한 賦는 막강한 漢帝國의 위세를 드러내는 일종의 방식이 되었다. 둘째, 漢賦는 아름다운 단어의 나열이나

8) 金學主, 『중국문학사론』, 서울대출판부, 2002, 50~51쪽.

9) 陣必祥, 『한문문체론』, 沈慶昊 譯, 이희, 1995, 18쪽.

僻字등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문학 작품의 語彙를 豊富하게 하였고, 묘사와 기교를 발전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작용도 하였다. 셋째, 문학 발전사 측면에서 볼 때 兩漢 辭賦(古賦)의 발전은 문학관념의 형성에 촉진작용을 하였다.

兩漢의 古賦는 漢代를 거쳐 魏晉南北朝로 내려오면서 점차 衰落하고 말지만, 그 체재는 계속해서 排賦, 律賦, 文賦 등의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 2) 排律

排律은 10句 以上の 律詩이다. 하지만 律詩의 一種으로 본래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를 못하다. 일반적인 이론을 보면 五言排律의 기원은 보통의 五言律詩보다 더욱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律詩는 五言古詩를 거쳐 점차 變해온 것인데, 五言古詩는 또한 많은 수가 8句를 초과하고 있다. 謝靈運 등의 詩에 벌써 排律과 같은 것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이 對仗을 쓰고 있기 때문에 排律과 같기는 하나 近體詩의 平仄規定에는 맞지 아니하므로 排律이라 하기는 어렵다.

排律의 수에 관해서는 보통 整數를 사용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다. 10韻 20韻 30韻 40韻 50韻 60韻 100韻 등이 그러한 例다. 하지만 어떤 排律은 整數가 아닌 것도 있다. 12韻 24韻 36韻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하여 題目上에 韻의 수를 밝힌 것을 排律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杜甫의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柳宗元の <遊南亭夜還叙志七十韻>, 白居易의 <遊悟眞寺詩一百三十韻> 등은 모두 古風詩지 排律이 아니다.<sup>10)</sup>

排律은 律詩를 확대한 것으로 五言排律과 七言排律이 있다. 南朝 宋代 顏延之와 謝靈運에 의해 비롯된 것이며, 唐代에 이르러 排律이라는 명목이 붙여지고 형식도 갖추어졌다. 平仄法과 押韻法의 제한이 있으나 한 수의 句數에는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것을 排律이라고 한다. 10句(行) 이상 짝수 句로 짓되 律詩의 平仄譜를 순서대로 추가하여 짓는다. 읊시에서 두 句를 단위로 더해 나간 長形의 近體詩이다.

排律의 正格은 12句 6聯이 기본 시형으로, 더 길어질 때 長篇이 되며 古風이라고 일컫게 된다. 排律은 또한 한 句를 五言으로 엮는 것이 中唐이후의 科試의 正格이었다. 12구의 경우 읊시 8행에서 絶句 4행이 더 들어간다. 1·2구를 起聯, 3·4구를 領聯, 5·6구를 頸聯, 7·8구를 腹聯, 9·10구를 後聯, 11·12구를 尾聯이라 한다. 1·2구의 起聯과 11과 12인 尾聯만 對偶가 되지 않고 敘述로 풀어야 하고 기타는 對偶가 되어야 한다. 근체시의 읊시 8행을 배로 하여 16행으로 이루어진 배율의 경우도 簾法(평측, 점법, 각운)과 對偶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平仄과 押韻은 律詩의 그것과 같으나 句數와 對語의 聯數가 다르다. 모두 對語聯句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排律은 五言에 限定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白居易와 元稹이 七言排律을 지었지만 그들의 排律도 極小에 不過하다. 때문에 허다하게 분류한 詩選이나 詩總集 속에는 五言排律만 있고 七言排律의 分類條目은 없다. 近代 文人들의 「聯句」는 長篇을 聯成하여 이룬 排律이 많다. 하지만 그것 또한 五言이다.<sup>11)</sup> 마찬가지로 우리 선인들의 한시 작품에도 排律이 인기가 없어 거의 짓지 않았으며,<sup>12)</sup> 명칭도 排律과 長律을 혼용해 왔다. 이 시체는 고려 후기 문집에 가끔 보이며 조선 중기에 많이 창작되었다. 排律의 일종인 聯句는 正祖가 신하들과 함께 지은 작품이 상당수 있으며,<sup>13)</sup> 世界 最高의 排律로 된 長篇詩는 광해군 때 疎庵任叔英(1576~1623)의 <述懷>이다. 716韻 1,432句로 7,160字에 이르는 五言排律의 巨作으로 우리나라의 歷史와 東岳 李安訥의 德行에 대한 찬사, 그리고 自身의 交遊關係 및 人生觀을 함께 말한 文學性이 뛰어난 作品이다.<sup>14)</sup>

10) 洪瑋欽 譯, 『漢詩音韻論』, 영남대출판부, 1983, 25~26쪽.

11) 洪瑋欽 譯, 『漢詩音韻論』, 영남대출판부, 1983, 27~28쪽.

12) 曹斗鉉, 『漢詩의 理解』(中國篇), 일지사, 1999, 21쪽.

13) 閔丙秀, 『韓國漢文學概論』, 太學社, 1997, 101~102쪽.

14) ① 金相洪, 『漢詩의 理論』, 고려대출판부, 2001, 58쪽.

② 閔丙秀, 『韓國 漢詩史』, 太學社, 1997, 325쪽.

## 3) 排賦

排賦는 駢賦라고도 한다. 이것을 古賦를 기초로 발전되어 온 새로운 賦體이다. 이 賦 형식은 魏晉時代에 시작되어 南北朝에서 성행하였다. 그 주된 특징은 字句의 엄밀한 對仗과 음절의 경중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특징은 당시 문학에 보편적이었던 變문의 풍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駢偶와 用典에서 화려함과 교묘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 排賦의 주요 특징으로 되었다. 사실 排賦는 압운한 變체문이라고 할 수 있다. 陸機와 左思가 그 선성을 올려내었고, 중간에 江淹과 鮑照를 거쳐 庾信에게 이르러 集大成되었다. 내용을 보면 排賦는 일상생활의 器物을 서술하고 규방여인의 이별정환을 드러내었다. 형식상으로는 엄격한 형식을 강구하였으므로, 제한성이 아주 컸다. 단 사상 내용이 건강하고 예술적 성취도 높은 작품이 몇몇 있다. 「登樓賦」, 「思舊賦」, 「別賦」, 「蕪城賦」 등이 대표작이다.<sup>15)</sup>

## 2. 作品의 特性

매천은 排律詩를 거의 쓰지 않았지만 매천이 쓴 七言 排律的인 賦體詩가 있다. 原題는 <萬壽聖節, 錦土城主設宴稱慶, 與郡中士庶北向祝萬歲, 因取天保詩如松柏之茂無不爾, 或承十字分韻賦各體名, 曰華封帖余得之字, 七排賦五十二韻>라는 시다. 매천이 1898년 戊戌年 44세 때 지은 詩로 104행이나 되는 장편시였다. 먼저 이 시의 긴 副題를 해석하여 보고, 이어서 이 詩의 全文을 쓰고 우리말로 옮겨본다. 韻字 表現의 省略을 위하여 역시 1, 3, 5 不言之 기초에 따라 韻字를 달지 않았고, 또 편의상 詩行의 앞부분에 번호를 부여하였다.

“만수성절<sup>16)</sup>에 금사성주인 구례군수 錦土 朴恒來가 경사를 삼아 잔치를 베풀었는데, 군중의 사서들과 더불어 북향하여 절하고 만세를 축하하였다. 그것으로 인하여 천보시를 얻었는데, 송백의 울창함을 맞이하는 것 같이 하였다. 10字를 얻어 韻를 나누고 詩歌를 지었는데, 문체 이름 각각이었다. 내가 이 글자를 얻어 화봉첩으로 이름하고 七排律로 해서 52韻으로 지었다.”

15) 陣必祥, 『한문문체론』, 沈慶昊 譯, 이회, 1995, 352쪽.

16) 1897년 光武 元년에 제정된 皇帝 誕日의 명칭임.

- 01 秋泉醞醖漲宮池, 가을 샘물로 빚은 좋은 술이 궁지에 넘치고,  
(先) (屋) (東)(支)
- 02 松桂香深午影移. 소나무 계수나무 향기가 짙은 낮에 그림자 옮겨간다.  
(霽) (侵) (梗)(支)
- 03 淸晝簾旌吹靄靄, 맑은 낮의 주렴과 정기가 화기하게 나부끼고,  
(宥) (庚) (賄)
- 04 遐陬蟻蠕入熙熙. 먼 모퉁이의 벌레도 화목 하는 모양이다.  
(尤) (銑) (支)(支)
- 05 嵩呼結戀陪銅篆, 만세를 부르며 연인이 되어 도장을 가지고,  
(虞) (霰) (東)
- 06 海屋添籌望玉墀. 해옥에 산 가지를 더하여 옥 섬돌을 바라본다.  
(陌) (尤) (沃)(支)
- 07 比地星升占較早, 풍속이 순후하여 좋은 곳을 일찍 비교하여 점을 치니,  
(寘) (蒸) (效)
- 08 非烟雲出繪尤奇. 연기와 구름 없어도 그리기가 더욱 기이하다.  
(先) (質) (尤)(支)
- 09 龍盤白岳千年鞏, 용처럼 서린 백악산은 천년으로 굳어 있고,  
(寒) (覺) (先)
- 10 鳳歷青邱百祿宜. 우리나라의 역사는 백록이 마땅하다.  
(錫) (尤) (屋)(支)
- 11 奕葉宣光豐豫後, 혁혁한 후손들은 빛을 발하여 풍부하고 깊어서,  
(葉) (陽) (御)
- 12 中興撫運聖神恣. 중흥의 운수를 만지며 성신의 모습이더라.  
(蒸) (問) (眞)(支)
- 13 春陵望氣曾推瑞, 한나라 용릉의 기운을 바라 일찍이 상서로움을 추구하니,  
(蒸) (未) (灰)
- 14 代邸橫庚誕應期. 저택에 가로지른 별이 응하여 탄생을 기약하더라.  
(薺) (庚) (徑)(支)
- 15 寶鑑縣空驚鬼膽, 일월은 하늘에 걸리고 귀신의 담력도 놀라우니,  
(咸) (東) (屋)
- 16 太阿在手奠乾維. 보검은 손에 있고 하늘의 진리를 안정시킨다.  
(歌) (有) (先)(支)
- 17 屢徑多難殷憂會, 많은 어려움과 은근한 근심의 때를 지나,  
(靑) (翰) (尤)
- 18 竟辦興衰揆亂基. 마침내 쇠하고 혼란함을 진정시킨다.  
(諫) (支) (翰)(支)
- 19 庭下梯航來萬國. 뜰 아래 놓여진 배는 만국에서 온 것이요,  
(馬) (陽) (願)
- 20 域中枹鼓靖三垂. 북쪽 변방 지역을 안정시킨다.

- (東) (慶) (覃)(支)
- 21 跛瘠聳動祈無死, 절름발이 병어리도 날뛰고 죽지 않기를 바라니,  
(侵) (董) (虞)(支)
- 22 琴瑟更新際有爲, 금슬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質) (眞) (宥)(支)
- 23 各帝一方凝大命, 황제가 각기 일방적으로 큰 명령을 하니,  
(霽) (陽) (泰)
- 24 復讐九世定群疑, 아홉 세대의 복수함이 무리의 의심을 진정하더라.  
(尤) (霽) (文)(支)
- 25 江湖子厚陳唐雅, 강호에 사는 유자후는 당아를 베풀고,  
(虞) (有) (陽)
- 26 堂陛孫通起漢儀, 당상의 숙손통은 한나라의 법을 일으키더라.  
(薺) (東) (翰)(支)
- 27 典冊莊嚴開國節, 법책은 장엄한 나라를 여는 절차요,  
(陌) (鹽) (職)
- 28 禎祥煥爛建元時, 상서로운 기운은 빛나는 건원의 때더라.  
(陽) (陌) (元)(支)
- 29 丹青宣榭行將繕, 사당에 단청을 하고 고치며,  
(青) (禡) (陽)
- 30 黼辰明堂坐亦治, 좋은 옷 입고 병풍 친 명당에 앉아 다스리더라.  
(尾) (陽) (陌)(支)
- 31 強場澄清千頗牧, 강한 지역의 맑음은 천 사람의 염과와 이목이요,  
(陌) (庚) (歌)
- 32 朝廷肅穆衆臯夔, 조정의 정숙과 화목은 늙지와 짐승이 많기 때문이다.  
(先) (職) (豪)(支)
- 33 年年暘雨交徵券, 해마다 풍흉을 따져 세금을 거두니,  
(先) (慶) (微)
- 34 郡群循良錯置棋, 군마다 순리가 장기판을 놓은 것처럼 선명하다.  
(問) (陽) (寘)(支)
- 35 何幸絃歌鳴此境, 어찌 현악기가 이렇게 노래하고 울리는가?  
(梗) (歌) (紙)
- 36 可憐儒雅足吾師, 가련키는 유가의 아담함이 족히 나의 스승이라.  
(先) (馬) (虞)(支)
- 37 月寒合浦珠初返, 합포 땅에 달은 차가운데 진주가 처음 돌아오고,  
(寒) (慶) (魚)
- 38 河潤弘農虎亦知, 물 넓은 홍농 땅을 호랑이도 역시 알더라.  
(曷) (冬) (陌)(支)
- 39 盤錯正須金用汝, 뒤섞이는 것이 모름지기 금처럼 네가 쓰니,  
(藥) (虞) (宋)

- 40 笑談惟見玉溫其. 소담은 오직 구슬이 따뜻함을 보더라.  
 (覃) (霰) (元)(支)
- 41 夢懸京闕雙鳧幻, 꿈엔 서울로 가서 짝 잃은 오리의 환상을 하고,  
 (先) (月) (虞)
- 42 捧簿公庭一鶴飢. 하급 관공서의 뜰엔 한 마리 학이 굶주리더라.  
 (慶) (青) (藥)(支)
- 43 滌上諸峯時引興, 강 위의 모든 봉우리는 때로 감흥을 일으키고,  
 (漾) (冬) (軫)
- 44 濟南名士舊能詩. 제남 땅 명사들은 옛 시에 능하더라.  
 (覃) (紙) (蒸)(支)
- 45 社回竇鞏傳筒信, 두레는 두공의 집에서 치르니 편지를 전하고,  
 (灰) (腫) (東)
- 46 禮倣陳蕃設榻規. 예의는 서유에게 자리를 양보한 진번의 규칙을 모방하더라.  
 (養) (元) (合)(支)
- 47 禪院張燈成宴集, 선원에 등축을 밝히고 잔치를 하니,  
 (霰) (蒸) (諫)
- 48 郊亭折簡解追隨. 정자에서 보는 편지는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  
 (青) (濟) (支)(支)
- 49 火流忽覺光陰迅, 화성의 흐름은 홀연히 세월의 빠름을 느끼고,  
 (尤) (覺) (侵)
- 50 金穰相傳戶口滋. 금이 많음에 집집마다 윤택함을 전하더라.  
 (養) (先) (有)(支)
- 51 齒苔歛房涼露重, 꽃 봉우리가 피기를 바라니 차가운 이슬이 꺼려지고,  
 (感) (陽) (遇)
- 52 梧桐吹韻晚炎衰. 오동나무가 흔들리니 늦더위가 쇠잔하더라.  
 (東) (問) (鹽)(支)
- 53 西山氣爽愁無賴, 서산의 기운이 상쾌하니 근심이 없어지고,  
 (刪) (養) (虞)
- 54 北闕雲紅問所思. 대궐의 구름이 붉으니 생각하는 것을 묻는다.  
 (月) (東) (語)(支)
- 55 旬日中元弦且晦, 칠월 25일 달은 활도 같기도 하고 침침하기도 하다.  
 (質) (元) (馬)(隊)
- 56 長春萬歲壽維祺. 긴 봄은 만세토록 오직 장수의 복을 빌더라.  
 (眞) (霽) (支)(支)
- 57 環瀛象譯齊騰賀, 세계의 역관들이 일제히 인사 올리고,  
 (庚) (陌) (蒸)
- 58 待漏鵷班例祝釐. 익조에 서있는 양반들이 예대로 복을 빌더라.  
 (有) (刪) (屋)(支)
- 59 官小敢投金鏡錄, 관청이 적으니 감히 금경록을 던질 것인가.

- (蔭) (尤) (屋)
- 60 愛均終有水調詞. 사랑을 고루하여 마침내 수조사가 있더라.  
(眞) (宥) (蕭)(支)
- 61 遂令薰沐窮編籍, 몸을 깨끗이 하고 책 편찬을 궁리하니,  
(靑) (屋) (先)
- 62 俾識忠誠出秉彝. 충성은 떳떳함에서 나옴을 알게 한다.  
(職) (庚) (梗)(支)
- 63 思繡衿紳絲萬縷, 사대부의 수놓은 옷깃에서는 만 갈래의 실이 나부끼고,  
(宥) (眞) (願)
- 64 彩棚城郭燭千枝. 포장을 친 성곽에서는 등 촛불이 천 갈래다.  
(庚) (藥) (先)(支)
- 65 主人肅客端袍笏, 주인과 손들은 옷과 홀을 단정하게 하고,  
(眞) (陌) (豪)
- 66 是曉開衙儼幕帷. 새벽 관하의 문을 여니 막과 휘장이 엄숙하더라.  
(蔭) (麻) (藥)(支)
- 67 桂棹蘭檣隔江浦, 계수나무 노와 목련 샅대가 강 포구에 떨어져 있으니,  
(效) (陽) (江)
- 68 榛山荅隰望天涯. 산은 무성하고 향기로운 꽃은 퍼져 하늘 끝을 바라보더라.  
(刪) (緝) (先)(支)
- 69 蚩氓炙背爭爲獻, 어리석은 백성이 등을 따듯이 하고 다투어서 헌수하니,  
(庚) (隊) (支)
- 70 上座漆香敬致辭. 윗자리에는 향기를 더하여 공경하며 말로 치하하더라.  
(箇) (陽) (寘)(支)
- 71 沆瀣三更溢銅掌, 삼경의 단 이슬은 받은 잔에 넘치고,  
(卦) (庚) (東)
- 72 曹蒲九節爛瓊卮. 아홉 마디 창포는 구슬에 찬란하더라.  
(虞) (屑) (庚)(支)
- 73 楚南樹古迎春早, 초나라 남쪽 고목은 이른봄을 맞이하고,  
(覃) (震) (眞)
- 74 海外花蟠閱歲遲. 꽃 서림은 해의 지나감을 보는 것이 더디다.  
(泰) (寒) (霽)(支)
- 75 詔草啣教丹穴鳳, 조서는 나무로 만든 봉으로 머금게 하고,  
(皓) (肴) (屑)
- 76 宮床支得綠毛龜. 임금님 상을 늙은 거북이로 지탱하게 한다.  
(陽) (職) (豪)(支)
- 77 稜生燁燁重瞳目, 위세는 당당하여 거듭 눈을 부릅뜨게 하고,  
(庚) (葉) (東)
- 78 毫長茸茸八彩眉. 빛은 예쁘기만 하여 여덟 빛갈의 눈썹이다.  
(養) (冬) (賄)(支)

- 79 願力拄成靈壽杖, 원컨대 힘은 신령스런 지팡이 되어,  
(職) (庚) (宥)
- 80 處心傾作太陽葵, 경건하게 마음을 기울여 충성되게 하소서,  
(侵) (藥) (陽)(支)
- 81 華卦祝切蕪從衆, 나라 봉안함을 간절히 축원하여 무리들이 좃기를 비니,  
(冬) (屑) (冬)
- 82 天保詞工樂報施, 하늘은 사공을 보호하여 기꺼이 갚음을 베푼다.  
(皓) (東) (號)(支)
- 83 進藥了知仙術妄, 약을 바친 후 선술이 망령됨을 알았으니,  
(藥) (支) (質)
- 84 放生還愧佛恩私, 방생하는 것도 부처님 은혜가 사사로이 부끄럽다.  
(庚) (寘) (元)(支)
- 85 豈知吾屬羣羣會, 어찌 나의 무리들이 모여서, 임금이 만세한지  
(支) (沃) (文)
- 86 共祝君臨萬萬春, 일년 되었음을 함께 축하함을 알리오,  
(屋) (侵) (願)(支)
- 87 已把岡陵增寶筭, 이미 구릉잡고 좋은 계책을 더했으니,  
(馬) (蒸) (皓)
- 88 更繡歌詠戴毛錐, 다시 노래를 되풀이하며 붓끝에 심는다.  
(元) (敬) (豪)(支)
- 89 迂儒奈抱天傾慮, 비겁한 선비는 하늘이 기울어질 것을 근심하고,  
(虞) (皓) (庚)
- 90 志士翻將世治危, 지사는 세상 정치의 위태로움을 바로 잡는다.  
(紙) (陽) (寘)(支)
- 91 臨履當存宗社責, 왕위는 응당 종묘사직의 책임이 있고,  
(紙) (元) (馬)
- 92 提封恰據霸王資, 영토를 장악함에는 패도와 왕도의 자질에 근거해야 한다.  
(冬) (御) (陽)(支)
- 93 檮鑿躑躅嚴投齋, 악을 물리치고 엄하게 하여 변방에 버리니,  
(豪) (沃) (尤)
- 94 汲鄭聯翩獎拾遺, 금과 정은 연이어 편편히 임금의 과실을 간한다.  
(敬) (先) (緝)(支)
- 95 馴致神功參位育, 신령의 공덕은 길들이고 치하하며 기르고,  
(寘) (東) (寘)
- 96 瞻言盛德頌猗那, 돌아보며 성덕을 말하고 칭송한다.  
(元) (職) (紙)(歌)
- 97 仰拚渾灑書添簡, 우리러 혼호함을 날아 글로 편지를 더하고,  
(元) (皓) (鹽)
- 98 旁徹雕斲化浹肌, 철저히 조각하고 벗겨 화하니 몸에 스민다.

- (屑) (支) (葉)(支)  
 99 品物生成忘帝力, 물품을 만들음에 황제의 힘을 다하고,  
 (物) (庚) (霽)  
 100 老人游戲作兒嬉, 노인은 장난치며 아이를 즐겁게 한다.  
 (眞) (寘) (支)(支)  
 101 皇穹俯視應從願, 하늘이 내려다보니 응당 원하는 데로 좃고,  
 (東) (眞) (冬)  
 102 率士胥欣不自持, 나라를 다스림에 흔쾌히 스스로 의지하지 않는다.  
 (麌) (文) (寘)(支)  
 103 準擬同招扶杖叟, 지팡이 짚은 노인을 초대하여 함께,  
 (紙) (蕭) (養)  
 104 山東有詔往聽之, 산둥으로 가서 조칙을 듣는다.  
 (東) (嘯) (青)(支)

漢詩 作品이 ‘역사 현실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를 알고 해석하는 일’을 文脈的 解釋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맥적 해석을 위해서는 작가의 삶의 軌跡을 緻密하게 考察 하여야 한다. 또한 시가 쓰여지게 된 시대적인 배경도 알아야 할 것이다. 시에서 원형적 이미지는 하나마다 개개의 상징과 비유계통을 이루어 어떤 시를 그 외의 많은 시와 연관시킨다.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詩作은 고립적으로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흔히 매천 시가 그렇듯이 이 시도 많은 古事成語와 歷史性을 담고 있다. 많은 典故가 있는 데다 長型이라서 難解하고 어렵다. 번역하고 平仄과 脚韻을 달아보았지만 바른 해석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우선 이 시가 生成되는 背景을 본다. 1896년 2월 俄館播遷으로 國家의 自主性은 손상되었고,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 심해져갔다. 이런 속에서 徐載弼 등은 국민의 힘으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獨立新聞을 創刊하고 獨立協會를 創立하였다. 高宗의 還宮 여론으로 1897년 2월 高宗이 還宮하면서 獨立協會와 일부 수구파가 연합하여 稱帝建元을 추진, 8월에 연호를 光武로 고쳤으며, 9월에는 窩丘壇(또는 圓丘壇)을 세웠고, 드디어 이곳에서 1897년 10월 12일 皇帝 즉위식을 올림으로써 大韓帝國이 성립하게 되었다. 高宗이 光武皇帝로 즉위한 기념일을 繼天紀元節이라 한다. 1897년 10월 21일(음력으로는 정유년 9월 17일)에는 새로운 國號·皇位 채택과 함께 조선의 연호인 建陽과 中國 年號인 光緒대신 光武를 채택,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독자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中國과의 主從關係를 극복하고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였던 것이다.

朝鮮時代에는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國慶日은 아니지만 經國大典 朝儀條에 따르면 元旦, 冬至, 聖節(中國 皇帝의 誕日), 千秋節(中國 皇太子의 誕日), 王·王妃의 탄일에는 朝賀라 하는 국가 주최의 祝賀 식전을 가지고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여러 地方의 官員들은 소재지에서 儀式을 행하고, 서면으로 陳賀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당시 구레군수였던 錦土城主 朴恒來가 皇帝 誕生日인 萬壽聖節의 경사스런 날에 잔치를 베풀고, 郡中의 士庶와 더불어 북향하여 절하면서 만세를 축하했다. 이런 연유로 <萬壽聖節-->이라는 七排賦體詩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매천의 憂國의 忠情·忠心은 모처럼 만에 國家 安危의 염려에서 탈피되어 이와 같은 長詩를 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漢詩는 儒學者의 작품이 많으므로 道德的이고 規範的인 觀念이 짙게 나타나기 마련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 또한 萬壽聖節을 題材로 하여 太平聖代를 노래한 시라고 말할 수 있다. 구례군수 朴錦士 恒來와 매천과의 관계를 보면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물론 박항래는 德治를 한 관료였다. 이 시가 쓰여진 1898년에 成均館에서 博士試를 시행하였는데, 박항래가 매천에게 이에 응할 것을 권하였으나 거절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梅泉集』을 보면 매천과 의기가 맞아 1898년을 기점으로 인근의 泉隱寺와 華嚴寺 등지에서 만나 시문을 읊고, 주고받기를 10여 차례나 하고 있다. 나중에 박항래는 礪山郡守로 영전하였고, 또 1906년 丙午年에 관서지방으로 부임하는 박항래에게 매천은 「答朴錦士恒來」라는 글에서 善政을 부탁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매천은 1899년 45세 때 時局匡救를 위한 「言事疎」를 썼는데, 아마도 박항래를 위해 쓴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漢詩 文體의 作法上의 基本的 순서에 따라 위 詩 <萬壽聖節-->을 살펴보기로 한다. 매천은 詩作法에서 철저한 근체시 위주로 시를 지었지만 보아야 할 것이 있다. <萬壽聖節-->은 시 중심으로 볼 때 순수한 排律만은 아니다. <萬壽聖節-->의 形式은 排律로 보이지만 賦體詩의 영향이 크다. 賦體詩 형식으로 排律은 아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이 시는 16행의 排律을 넘어선 104행이어서 52개의 解를 이룬다. 2行 1解의 52韻으로 구성된 七言長篇으로 變化의 場을 무한하게 이루어 가고 있다. 이 시는 平起法으로 시작되었고, 脚韻은 平聲(支)운으로 되었다. 그러나 瑕疵가 있다. 96행의 那 글자의 脚韻자는(歌)운으로 쓰였다. (支)는 上平聲이지만 下平聲인(歌)운으로 쓰이면서 통운으로 활용이 된 것이다. 아마도 매천이 長篇詩인 이 시를 지으면서 韻을 달다 지쳐 통운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은 漢詩作法의 허용사항이지만 一韻到底韻은 아니다. 104행이나 되는 긴 시임에도 나머지는 平聲(支)운을 사용하고 있으며, 隔句로(支)韻을 달면서 나아가고 있다.

2) 평측은 2·4不同에서 전연 문제가 없다. 그러나 71행에서 2·6대에서 瑕疵가 있다. 제 2자인 灋자가 측성(卦)운이고, 제6자인 銅는 평성(東)운으로 맞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편시 가운데 이런 정도의 失韻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3) 점법은 제2자와 제6자의 경우 평측측평, 제 4자의 경우 측평평측으로 원리대로 맞추고 있다. 다만 71행의 銅자는 평성(東)운이므로 맞지 않고 있다. 古詩는 古詩 특유의 리듬감 형성을 위해 동일한 글자나 어구를 자주 중복하기도 한다. 근체시에 자주 보이지 않는 조사나 대명사, 詩經에서 자주 사용된 허자인 言·云·載와 혹은 복합어로 이루어진 부사어구인 一何, 何其, 誰云, 無乃, 不如, 那堪을 쓰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 詩는 그러한 어구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4) 賦란 韻文과 散文의 中間으로 韻文의 形式을 따온 것이고 散文의 敘事的인 면을 따온 것이다. 排賦는 律詩 형식을 취하면서 賦體詩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면서 排律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排賦는 자연히 서정적이며 사물을 自己化해서 物我一體로 끌어들인다. <萬壽聖節-->의 詩 내용으로 보면 매천의 주관적 서정을 묘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詩經 또한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시의 형식은 七言排律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詩經體의 賦의 속성을 띤 것이다. 이 시는 詩想의 전개에 내맡겨서 근체시의 방법으로 시를 창작하였고, 散文句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萬壽聖節-->이라는 시는 매천이 文體的인 형식에 執着하여 쓰다보니 排賦가 되었을 것이다.

## V. 五言排律 &lt;宿山寺&gt;

앞서 본 바와 같이 中國이나 우리나라 詩人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오언배율은 지었지만 칠언배율은 인기가 없어 거의 짓지 않았다. 이것은 호흡이 긴 敘事詩的인 長詩보다는 짧은 抒情詩를 추구하는 시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고, 매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칠언배율은 짓지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매천이 쓴 五言排律은 있다. 全州大에서 발간한 『梅泉全集』의 卷三의 254쪽에 있는 補遺詩로 <宿山寺>6句와 <幽居>10句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들은 상해본 『梅泉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옛날의 개념은 1句가 2행에 해당이 되므로 각각 12행와 20행으로 된 시들이다.<sup>17)</sup> 本稿에서는 <宿山寺>를 이용하여 오언배율을 정리하여 본다.

- 01 谷口林花落, 계곡입구 숲 속의 꽃이 지니,  
(有) (麻)
- 02 牀頭經韻來, 평상 마루에 운치가 찾아온다.  
(尤) (問)(灰)
- 03 藤陰如翠靄, 등나무 그늘은 비취색 연무 자욱하고,  
(侵) (寘)
- 04 石路半蒼苔, 돌길은 절반이 푸른 이끼이다.  
(遇) (陽)(灰)
- 05 虎豹藏深窟, 호랑이와 표범이 숨어사는 깊은 굴에,  
(效) (侵)
- 06 烏鴉噪暮臺, 날 저문 돈대에서 까마귀 지저귓다.  
(麻) (遇)(灰)
- 07 佛香雙戶掩, 불당의 향기는 산사를 감싸고,  
(陽) (夬)
- 08 鍾韻畫樓開, 쇠북소리 화루를 연다.  
(問) (尤)(灰)
- 09 粥帶青松葉, 죽은 푸른빛을 띤 솔잎 죽이고,  
(泰) (冬)
- 10 羹渾綠芋蓼, 국은 초록 빛 토란과 섞여있다.  
(元) (夬)(灰)
- 11 上方情覺睡, 절의 주지는 졸음을 깨고,  
(陽) (效)
- 12 茶鼎轉微雷, 차 끓이는 소리는 작은 우레처럼 들린다.  
(迥) (微)(灰)

이 시는 山寺의 정경을 소재로 매천의 서정을 읊은 시이다. 깊은 산 속 해 질 녘 평상에서

17) 拙稿, 『黃玿 詩 研究』, 全北大 教育大學院 漢文教育科 碩士學位論文, 2003, 114쪽.

바라보는 절 주변의 寂寂하고 괴괴함을 잘 표현한 詩이다.

역시 詩行의 앞부분에 번호를 달고 이 시를 분석해 보면 평성(灰)자 脚韻으로 되어 있으며, 仄起法으로 된 시이다. 2·4不同的 내용도 모두 맞다. 점법도 제2자는 ‘측평평측, 측평평측, 측평평측’으로 되어 있고, 제4자는 ‘평측측평, 평측측평, 평측측평’으로 되어 이상이 없다. 그리고 01과 02 그리고 11과 12는 서술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03·04와 05·06과 07·08과 09·10의 出句(또는 內句)와 對句(外句)가 對偶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례대로 보면 藤陰↔石路, 虎豹↔烏鴉, 佛香↔鍾韻, 粥↔羹으로 名詞를 이용한 對偶가 鮮明하게 活用되고 있다. 07, 08행의 掩↔開의 動詞 對偶도 이루어지고 있다. 09, 10행은 對偶가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詩行으로 볼 수 있다. 對仗과 平仄規定이 잘 맞아 결국 이 시는 근대시 3대 작법에 어긋남이 없는 오언배율의 시다.

매천의 또 다른 오언배율 <幽居>라는 詩는 평성(先)자의 각운으로 되어 있고, 역시 평측, 점법이 잘 맞고 있는, 배율로서 이상이 없는 시다.

## VI. 結語

本稿에서는 매천이 쓴 詩 가운데 排律로 생각되어졌던 <示重三>, <萬壽聖節>과 오언배율 <宿山寺>의 詩 三首를 감상하고 분석하여 보았다. 漢詩의 賦와 排律과 排賦와의 관계도 비교하여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매천은 漢詩 創作에 있어 外形的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作詩를 하였다. 매천 시를 총체적으로 분류해 본 결과 매천은 詩 作法이 엄격한 律詩를 즐겨 지었고, 五言律詩보다는 특히 七言律詩를 좋아하여 가장 많이 썼다.

매천의 七言詩 가운데 律詩와 律詩가 합해져 16행으로 이루어진 시 가운데 <示重三>의 경우 排律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詩體를 분석한 결과 七言律詩 二首가 排律처럼 보이는 通韻을 이루고 있는 構成이었으며, 二首一篇으로 이루어진 連作詩에 불과하였다. 또한 <萬壽聖節-->의 詩도 七言排律로 보였다. 그래서 韻字 中心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七排이긴 하였지만 역시 排律은 아니었다. 七言排律의인 賦體詩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매천은 漢詩 創作에 있어서 排律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매천도 五言排律을 썼는데, <宿山寺>와 <幽居>가 그것이었다. 매천이 漢詩의 여러 詩體가운데 近體詩의 律詩를 즐겨 썼다해도 排律은 거의 쓰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漢詩 作法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七言律詩와 유사한 16행 등의 七言排律을 쓰지 않았다.

結論적으로 말해 매천의 대 전제는 近體詩를 즐겨 지었고, 근체시를 좋아한 것은 사실이나 극히 일부의 五言排律을 제외한 七言排律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遺憾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1. 資料

黃 玆, 『梅泉全集(全四)』, 全州大 湖南學研究所, 1984년.

\_\_\_\_\_, 『梅泉集(上海刊)』, 編輯主幹 權明洙, 靑丘文化社, 1979.

\_\_\_\_\_, 『梅泉野錄』, 國史編纂委員會, 民衆書館印刷局, 檀紀 4288(1955).

## 2. 著書

李炳基, 『梅泉詩研究』, 보고사, 1995.

\_\_\_\_\_, 『梅泉黃玹散文研究』, 보고사, 1995.

\_\_\_\_\_, 『漢詩作法』, 보고사, 1996.

\_\_\_\_\_, 『漢詩演習』, 보고사, 1999.

洪瑀欽 譯, 『漢詩音韻論』, 영남대출판부, 1983.

陣必祥著, 심경호 역, 『한문문체론』, 이희, 1995.

奇泰完, 『黃梅泉詩研究』, 보고사, 1999.

尹永春 譯, 『詩經』, 韓國書籍公社, 1983.

金相洪, 『漢詩의 理論』,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閔丙秀, 『韓國漢文學概論』, 太學社, 1997.

\_\_\_\_\_, 『韓國漢詩講解』, 太學社, 1995.

\_\_\_\_\_, 『韓國 漢詩史』, 太學社, 1997.

이병한 편저, 『중국고전시학의 이해』, 文學과知性社, 2000.

金學主, 『中國文學史』, 신아사, 2001.

\_\_\_\_\_, 『중국문학사론』, 서울대출판부, 2002.

이수웅 · 김경일, 『中國文學史』, 대한교과서, 1994.

曹斗鉉, 『漢詩의 理解』(中國篇), 일지사, 1999.

『古詩歌研究』 제12집, 韓國古詩歌文學會, 2003.

## 3. 論文

李炳基, 「黃梅泉詩 研究」, 全南大 博士學位論文, 1983.

文守弘, 「梅泉 黃玹의 愛國詩攷」, 東國大 教育大學院 論文, 1986.

金榮鵬, 「黃玹 詩 研究」, 全北大 教育大學院 漢文教育科 碩士學位論文, 2003.

<Abstract>

A Study of Baeyul(排律) in Maecheon's Poems

Kim, Young-bung

In this paper I studied whether Baeyul(排律) was used in Maecheon's poems. Maecheon, who used a variety of styles in his poetry, preferred writing modern-style poems which have strict rules to writing old-style ones. In particular, he enjoyed writing Chilanyulsi(七言律詩-Chinese poems which have seven characters horizontally and eight characters vertically) more than Oanyulsi(五言律詩-Chinese poems which have five characters horizontally and eight characters vertically)

At first I thought that his two poems, Sijungsam(示重三) and Mansusongjeol(萬壽聖節) were written using Chilanbaeyul(七言排律). But after careful analysis, I found that Chilanbaeyul (七言排律) was not used. In conclusion, he had hardly used Baeyul(排律) although he used Oanbaeyul(五言排律) in a poem, Suksansa(宿山寺). Moreover, he had never used Chilanbaeyul(七言排律), which is similar to Chilanyulsi.

Key words : Baeyul(排律) in Maecheon's Poems, 示重三(Sijungsam), 萬壽聖節(Mansusongjeol), 宿山寺(Suksansa), 五言排律(Oanbaeyul), 七言排律(Chilanbaeyul)

<논문투고일 : 2003.12.31 심사완료일 : 2004.1.31. 게재확정일 : 2004.2.14>